

오규 성터

오규 성은 1400년대부터 1500년대 후반까지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했던 대규모 산성이었습니다. 마쓰다이라고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3km 거리로, 도요타시와 니시미카와의 평야부가 바다다보이는 해발 약 200m의 언덕에 있습니다. 이 언덕에 성을 처음 쌓은 것은 나가사카 신자에몬이라는 이 지역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쓰다이라 가문이 마쓰다이라고에서 남쪽과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을 때 마쓰다이라 노부미쓰(1404~1488)에게 빼앗겼습니다.

노부미쓰의 손자인 노리모토(1446~1537)는 이 성에 대한 지배권을 허락받아 자신의 분가 거점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오규 마쓰다이라 가문은 1500년대 중반, 지역에서 세력이 왕성해져 다른 마쓰다이라 분가와 종종 영토와 영향력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성은 2개의 주요 도로와 강이 교차하는 지점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산 중턱에 파놓은 마른 해자로 보호되었습니다. 성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과 고구치(호랑이 입)라고 불리는 입구에는 토루(흙벽)가 설치되어, 성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침략자도 내려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성의 방어 구조는 지금도 그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거대한 바위틈으로 이어지는 길 양쪽의 돌담에는 망루를 설치해 자연의 요새로 이용했습니다.

언덕 정상 부근의 평탄한 부분에 성의 혼마루(성의 중심이 되는 부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조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가장자리에는 망루 역할을 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언덕의 북쪽에는 버팀돌을 댄 좁은 계단식 논 터가 있는데, 이 논은 성안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작은 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혼마루의 남쪽 아래에 있는 성안에서 가장 넓은 평지는 오규 마쓰다이라 가문의 저택이 있던 곳일 지도 모릅니다.

오규 성은 1500년대 후반에 폐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합니다. 천수각과 높은 돌담이 보급되기 전의 일본 성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서 산 정상까지는 걸어서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